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나의 대화]

이름	김민채
전공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학번	20241951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담당교수) ☒ 글말특강 (9회차)

이번 학기에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교양 수업을 들으며, 저는 진로뿐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짝과 마주 앉아 주어진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흐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끊긴 후의 침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이 서툴러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불편하고,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말을 잘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글말 특강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9회차 강의에서 “내가 밝아야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과 내면 소통을 잘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면과 소통하는 것이, 타인과의 소통보다 우선이라는 점이 제겐 꽤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후 저는 대화 중 상대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작더라도 칭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말할지 명확히 전달하는 'what-why-how' 구조 역시 두서없이 말하던 제 표현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의 제 태도와 자세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던져주는 질문에 기대어 대화를 이어가며,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상대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를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상대와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 “대화하며 잘 웃는 게 보기 좋다”, “사교성이 좋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은 소심한 성격으로 대화를 피하던 제가 단기간에 조금 성장했음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일대일 대화를 회피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대화에 도전하려는 용기까지 갖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는 걸 매 순간 느끼지만, 저는 지금의 이 과정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낯선 상황에 계속 부딪혀 단단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대화할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상대의 선한 의도를 먼저 읽어내는 태도를 익힐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